



예거 르쿨트르, 레터링 아티스트 알렉스 트로슈와의 새로운 협업 발표

예거 르쿨트르는 메종의 창의적인 문화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Made of Makers'의 일환으로 저명한 레터링 아티스트, 알렉스 트로슈(Alex Trochut)와의 새로운 협업을 선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워치메이킹 외 분야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장인들과의 협업 시리즈인 'Made of Makers'를 통해 시계 제작과 예술 간의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매뉴팩처를 정의하는 핵심 원칙들을 따르는 그랑 메종은 창의성 및 전문성, 정밀성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선도적인 크리에이터들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업은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현역 전문가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바르셀로나 태생으로 지난 10년 간 뉴욕에서 활동한 알렉스 트로슈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실험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알렉스는 시계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장인과 다이얼 및 케이스를 장식하는 장인처럼, 매우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작품을 통해 깊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는 언어의 시각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글자와 단어를 새로운 한계로 밀어붙임으로써, 보는 것과 읽는 것을 같은 행위로 만듭니다. 따라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하나의 통일된 표현이 됩니다.

예거 르쿨트르를 위해, 알렉스는 새롭고 대담한 현대식 알파벳 스타일인 *1931 알파벳*을 선보이며 그랑 메종의 가치를 의미 있게 그려냈습니다. 그는 문체의 시작점으로 아르데코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양식은 그의 두 번째 고향인 뉴욕의 시각적 풍경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동시에 예거 르쿨트르에 있어 리베르소의 기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르데코는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1920~3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쓴, 진보적이고 낙관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매력적인 기술,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로 세계를 휩쓸었던 탁월한 모더니티 정신을 표현했으며, 이는 항상 매뉴팩처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알렉스 트로슈와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작업은 전위적이며, 우리 메종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알렉스가 예거 르쿨트르를 위해 만든 새로운 1931 알파벳은 메종의 시각적 아이덴티티에 강렬한 현대성을 더해줍니다. 아르데코를 신랄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각 문자는 대담한 조각 작품처럼 강렬한 시각적 깊이를 지닌 동시에 역동성과 움직임 전달합니다. 이는 2 차원 형태와 3 차원 사물에서 모두 똑같이 표현됩니다.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르데코와 예거 르쿨트르의 시계 제작 기술을 통합할 콘셉트가 떠올랐다”고 알렉스가 전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하나의 전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다양한 모듈식 부품으로 가득한 일종의 메커니즘을 연상시켰습니다. 저는 이 글자들이 물리적으로 느껴지며, 복잡한 부분을 기능적이고 장식적으로 똑같이 노출하여 움직이는 기계의 느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작품과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 및 장인들의 작품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예와 기술이 타이포그래피와 시계 제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자는 퍼즐처럼, 하나의 알파벳이나 글자 형태로 묶는 내부 논리를 통해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혼합한 것입니다. 시계 제작에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분야 모두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는 작은 요소들의 공헌을 보여줍니다.”

시각적 및 정서적 차원에 즉시 관여하는 알렉스의 작품은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문자 디자인은 서면 매체의 비언어적 의사 소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1940 년대에 혁신적인 모듈식 타이포그래피 및 장식 시스템을 발명하여



타이포그래피 역사에 주요 공헌자로 인정받은 할아버지 조안 트로슈(Joan Trochut)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랑 메종의 또 다른 시그니처가 될 1931 *알파벳*은 리베르소 케이스백의 맞춤 인그레이빙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로 제공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이니셔티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 트로슈 소개

스페인 출신 타이포그래퍼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아티스트 알렉스 트로슈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실험적인 접근 방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중 문화, 거리 문화, 패션, 음악에서 영감을 얻는 그는 시각적 매체로서의 언어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텍스트와 이미지가 하나의 통일된 표현이 되도록 단어를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2011 년에 출판된 그의 논문, *More Is More* 은 그의 작업 방법론과 영향을 탐구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알렉스는 엘리사바(Elisava, 바르셀로나 디자인 & 엔지니어링 스쿨)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베를린에서 2 년 동안 일한 후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습니다. 2007 년부터 독립적으로 일한 그의 고객은 주요 소비자 브랜드부터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 케이티 페리(Katy Perry)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알렉스는 2012 년부터 뉴욕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Made of Makers 소개

2022 년에 시작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위치메이킹 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장인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시계 제작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교류를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그랑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며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크리에이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되는 새로운 작품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정된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 공예, 디자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 정보



jaeger-lecoultre.com